

참된 크리스천의 바른 신앙생활

요한복음 17:15-17

Day 1

죄의 문제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이유는 '성도'란 말이 죄악 된 세상과 구별된 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의 책임은 죄악 된 세상과 절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두운 세상과 짝지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17:16) 빛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며(요17:15)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요17:17). 이것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3:3

Day 2

분리하라!

세속화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영향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에 잠식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오늘날 세상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고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왔으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구분 할 수 없는 삶,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섞인 무리”(느13:3)와 분리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는 죄악 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운동을 계속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짝지어 살지 말고 분리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세상의 경건치 않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29, 고린도후서 12:9

Day 3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기 싫어합니다. 그 결과 믿음의 기초만 쌓게 되므로(눅14:29) 이런 저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눅14:29).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 또는 삶의 십자가 없이 그저 장식용 십자가만 지니고 교회를 들락날락해서는 제자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제자 만드시는 예수님 발 앞 에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함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고후12:9).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3-21, 요엘 2:28-32

Day 4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날, 백이십 문도의 성령강림 충만함으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 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행2:13)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기를 백이십 문도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요엘2:28-32)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행2:17)가 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의 일환으로 백이십 문도들이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세상의 전쟁과 환란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2:2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21)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15

Day 5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 헛된 일”(행14:15), 즉 신들을 인간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이방 종교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걸어 본적이 없는 앓은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을 때,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라고 외치면서 바나바를 “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대변하는 신인 “허메”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화 했던 것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행14:15).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죽은 신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일치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9:1-8

Day 6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롬9:1-2).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인(롬9:3)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행위로 말미암아(롬9:11) 의롭다하심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롬9:4-5)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며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하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롬9:6). 그 약속의 말씀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7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롬9:3절).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특히 가족과 친척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대신 받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6

Day 7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는 갈급한 심령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주목해야 했던 대상은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게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이 없는데 있는 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상대방을 낙심 시킬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척하므로 더 큰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과거에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시편 기자나 포로 되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했지만(시126:5-6절) 기도 응답의 더딤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날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을 생각 하면서 당시에 가득했던 웃음과 기쁨에 젖어 들었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을 때(시126:3)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모두 함께 찬양을 드렸던 기억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하박국 3:17-18

Day 9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까?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헌신한 상황은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환난 날”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한 날입니다(합1:6).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농작물과 가축이 없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잠잠히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합3:18)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합3:19).

시편 38

Day 10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들이 죄를 범할 때 받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3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살이 자기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자기를 심히 누르심으로 세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시38:3, 7). 두 번째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시38:4) 평안함을 잃었고(시38:3) 불안하여 신음까지 하였습니다(시38:8). 그 결과, 그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시38:5) 슬픔 중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시38:6). 그리고 그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습니다(시38:11). 세 번째 고통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시38:12).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실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시38:21).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침묵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시38:15)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18절). 그런 후에, 마음을 돌이켜 선을 좇아야 합니다(시38:20).

에베소서 4:4-5, 고린도전서 12:25, 로마서 12:15

Day 11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는 신자들, 즉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구속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각 지체들의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왜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습니까? 그 이유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고전12:25). 그러기에 교회는 돌보는 사역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롬12:15)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양성 속에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엡4:4-5).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20-25

Day 12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한 연유로 사슬에 매인 채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배타고 행선 하던 중 큰 풍랑을 만나 타고 있던 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가운데 바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백칠십오명은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 삶을 포기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있던 바울은 구원의 소망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행27:23-24).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자신이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바울은 구원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 로마서 6:23

Day 13

살려 두지 못할 사람

사도 바울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 모든 무리에게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총독 베스도도 그에게서 아무런 죽일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는 살려 두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찍었고 그는 사형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소를 당하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눅23).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롬6:23).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4:12

Day 1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셨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이름입니다. 마치 그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가 앓은뱅이 된 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9:30-33

Day 15

“부딪히는 돌”

예수님은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롬9:31)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9:32-33절)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이방인들에게는(롬9:30)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롬9:32)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움(실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징검다리 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롬9:30)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인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은 “부끄러움”(실패)을 당치 아니하였습니다(롬9:33).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징검다리 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롬3:27)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징검다리 돌이 되어주십니다.

Day 16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행2:36),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행2:23)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유대인들과 불법자들에게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행2:24).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로 하여금 희망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행2:26).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행2:28). 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란 우리에게 최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이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행2: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행2:33).

Day 17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모든 힘을 쏟아 헌신하였습니다. 죄목이 없는 죄수인 바울, 그는 로마에 끌려와서 2년 동안 자유스럽게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행28:30)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때 바울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행28:31).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였습니다(행28:23). 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불신앙의 원인은 그들의 완악해진 마음과 둔해진 귀와 감겨진 눈 때문이었습니다(행28:26-27). 결국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행28:28). 그 결과,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확산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잠언 9:8, 아모스 5:13-15, 미가 6:8

Day 18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잠9:8 상반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때에도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이 성문에서 판결과 지령을 내렸지만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일어났던 또 다른 죄악 된 일은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며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가리켜 아모스 5장13절에선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때와 같은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혜자를 본받아 잠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잠잠함은 오히려 거만한 자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므로(암5:15)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6:8)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12

Day 19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주목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 된 자를 일으켰을 때, 모든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었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행3:12)라고 말하면서 그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님을(12절)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주목 받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자신에게는 권능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건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비취 볼 때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한 이루어진 일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부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15

Day 20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10:15)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화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서 편견 속에서 차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본능, 즉 이웃을 향한 편견의 벽과 차별의 벽, 모든 선입관의 벽을 우리는 방망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부서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9-10

Day 21

아버지 다윗

아버지로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했을까요? 첫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습니다(대상28:9).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아들에게 전승시키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란 바로 그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왕상2:3). 둘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대상28:9).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형통의 복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를 택하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대상28:10).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담대하게 주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23:11

Day 22

담대하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담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큰 분쟁” 한 가운데서 찢겨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또한 그를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동맹한 사십 여명의 살기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 금식 결사대원들은 단순한 감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극단적인 경건의 표현으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유상섭).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담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임하셔서 담대하라고 권면하시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1

Day 23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란 첫째,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 모인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위선을 경멸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표현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유상섭). 한 마디로 말한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경멸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2:17-24

Day 24

참된 크리스천

겉으로 보기에만 크리스천(표면적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소경된 자,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인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믿습니다(롬2:19-20).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은 배우려하지 않고(21절), 외면적 생활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참된 크리스천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입니다. 이면적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삽니다. 결코 입술로만 섬기지 않으며 외면적인 생활에 치중하기보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시편 90, 전도서 12:13

Day 25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90:12).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내용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요(시90:3), 신속히 가기 때문이요(시90:4-6, 10 하반절), 또한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시90:10 상반절). 이렇게 허무한 인생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인생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시90:7).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전12:13). 둘째로, 주님의 인자로 만족하는 삶입니다(시90:14).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7, 80 인생보다 나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시63:3).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1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시90: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길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14:3-9

Day 26

아름다운 일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는 예수님께 “좋은 일” 혹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막 14:6). 그녀가 행한 아름다운 일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삼백 데나리온 가치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행한 아름다운 일은 주님과 동일한 비전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힘을 다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그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 하셨던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막14:8). 예수님의 비전을 준비한 이 여인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행한 아름다운 일은 계산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처럼 삼백 데나리온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막14:4-5).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아낌없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17

Day 27

복음에 빛진 자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들입니다(롬1:14).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롬1:16).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마1:18).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롬1:4).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롬1:4).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바로 복음입니다(롬1:3-4).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롬1:1).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Day 28

사람 보기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은 때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고전1:26).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가 외적인 우수한 조건 때문에 개종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고전1:27-28).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고전1:30).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고전1:31).

요나 2:3-4, 8-10

Day 29

그리하셨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기보다 부당하다는 생각 속에서 그 현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은 보통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수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러한 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육신적으로는 생사기로에 놓여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느낌 속에서 ‘영혼의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요나는 “다시 주님의 바라보겠다”(욘2:4)는 결심으로 “큰물”과 “큰 물결”(2:3)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2:8), 또한 예배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9절). 그는 불평, 원망하는 자가 아닌 감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9절),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9절)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2:10). 우리도 요나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4-6

Day 30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바울은 로마서 7장 4-6절 말씀을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롬7:5).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맺었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부정과 불법 가운데 행하며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살았던 삶을 가리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6:15). 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은 “죄의 정욕대로 사는 삶”(롬7:5)입니다. 이 삶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며 사는 삶(롬1:24)이요,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역리대로 사는 삶(롬1:26)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거룩함이요, 거룩함의 마지막은 바로 영생입니다(롬6:22).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롬1:6)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롬1:7).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드리는 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